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90호 1판 (음력 11월 15일)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정파초월 경제부터 살려라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 주문
황 대행체제, 유일호 경제팀 유지 '가닥'…야권은 혼선
초당적 정책 공조 시스템 구축, 경기 부양 대책 마련해야

여야 3당이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경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실 우려마저 커지고 있으며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에도 2%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유일호 경제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야 8개월밖에 지속되지 않는 만큼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해 사실상 힘이 빠진 상황이어서 과연 위기의 경제를 이끌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도 아직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유 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최종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경제 사령탑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백지위임'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답을 내지 못한 것이다.

반면, 송영길 의원은 "임 내정자가 돌파력과 책임감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경제 전문가인 최운열 의원도 "임 내정자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삼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탄핵안 처리 전부터 민생 경제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세울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수권 세력으로서 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위기의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며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추가적인 경기 하강을 막으려면 경제사령탑을 둘러싼 혼선을 조기에 정리하고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정책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동욱기자 tuim@

1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압촌동에서 열린 광주도시첨단산업단지 기공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이 첫 삽을 뜨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 착공

2019년까지 1428억 들여 에너지신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신산업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12일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강호인 국토부 장관·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윤장현 광주시장·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기념사에서 "광주도시첨단산단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유기적으로 보완 연계하며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중추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도시첨단산단은 남구 압촌동·지석동 일원 48만5000㎡ 면적에 조성하는 에너지신산업 중심단지로 14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도시첨단산단은 1단계와 인근 제2단계 124만㎡ 규모의 지방산단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성하는데 이번 기공식은 1단계 사업지구다.

2019년 준공 예정이며, LS산전 등 기업·한국전기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분원 등이 입주한다.

국토부와 광주시는 산단이 완성되면 약 1조원의 생산유발과 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978억원이 투입되는 지방산단은 내년 4월 착공해 2020년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개헌특위 신설 합의…국회 논의 불붙나

위원장 새누리서 맡기로
15~31일 임시국회
20·21일 대정부질문

여야가 12일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 추동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여야는 이달 15~31일 임시국회를 열고, 20·21일에는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어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민생 및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3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정협의체 운영과 관련,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실무협의는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들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활동해 온 7개 국회 특위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개헌특위를 신설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정협의체 최고 결정단위에 당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대표급 회의체를 원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여할지 여부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불확실성을 걷어내 국민에 신뢰와 안정을 주는 게 권한대행의 역할"이라며 "야당도 무책임한 폭로전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와 해법을 진지하게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사의를 표명한 반면 이정현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는 야당을 믿을 수 없다면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이어서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변수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협정, 성과연봉제 정책 등의 폐기 혹은 철회가 즉각 이뤄지도록 요구할 태세여서 정부 측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영수 특검팀 수사 본격 착수

특별수사관 40명 외 인선 마무리…대치동 사무실 입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과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전반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서울 강남 대치동 사무실 입주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4명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 선발대가 입주를 시작, 13일에는 박영수 특검도 현재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이 아닌 대치동 사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선릉역 인근의 D빌딩 17~19층을 쓰기로 하고 전날까지 사무실, 조사실 등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컴퓨터 등 사무기기 설치 작업은 이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차 파견검사 10명이 공식인사 발령을 받고 이날부터 특검팀에 출근함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으로 수사 핵심 인력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 파견공무원 40명 인선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특별수사관 40명 인선은 이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사무실 마련을 계기로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방대한 수사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현재 특검이 출근하는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이 아닌 제3의 공간에 수사 서류를 모아 놓고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핵심 수사 인력을 투입,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